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0

1998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로마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

1998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로마서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지역사회 봉사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소서.
4.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6.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7.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8.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총현 5대 목표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느 덧 지난 여름의 고난을 뒤로 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모든 아픔을 씻으시고 참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5대 목표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놀라워하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예배**를 위해 복음만을 전하는 강단과 영성이 넘치는 찬양, 그리고 여러 봉사자들의 말없는 헌신을 허락하셨습니다. **천국 일꾼 양성**을 위해서는 170명의 소석장학생과 6개월에 걸친 심사를 통해 그 중 8명을 전액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는 47개팀의 농어촌전도대를 파송할 수 있게 하셨으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6개국에 7개팀의 단기선교팀을 파송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해서는 이웃들을 위한 구제를 꾸준히 실천하게 하시고 수해를 당하여 고통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주변의 이웃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 공원을 만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일들을 중심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각 가정과 구역에서부터 항상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를 말씀과 성령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1998년 10월

위임목사 김성관

충현의 만나

1998년 10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로마서 서문

로마서는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끝마칠 무렵 “로마교인들”에게 보내기 위해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로마교회는 박해로 인해 피로 얼룩진 교회였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사실 로마교회는 바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나 바울의 가슴에는 서바나(지중해 동쪽의 스페인)를 선교하기 위한 선교 전략상 항상 로마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선교 비전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했고, 그 분이 주신 복음의 말씀이 그의 전생애를 움직여 놓았다. 그 복음을 서방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서 로마교인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오면 복음 사역에 협력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충당하기 위해 마게도나와 아가야의 이방 기독교인들이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롬 15:25-28).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로마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은 비전”이 그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있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몇 가지 동기가 있다. 첫째는 서바나 선교를 위한 전략상 로마 방문을 준비케 하려는 목적이다. 둘째는 구원의 도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훈을 가르칠 필요성을 느껴서 기록한 서신이다. 대부분의 서신들은 교회의 문제성을 다루기 위해 기록되었는데, 로마서

는 그렇지 않다. 단지 성도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체계화시켜 주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방대한 논문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다(1:16-17).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은 죄의 그늘 아래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각성시키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준비하셨으며,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피력하고 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의의 병기**”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로마서를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점검하고 “**믿음의 삶**”을 향해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란다.

내용 흐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1:1-17)

죄 아래 있는 인류(1:18-3:20)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3:21-5:21)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의 삶(6:1-8:39)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9:1-11:36)

믿음의 삶(12:1-15:13)

하나님의 일꾼들(15:14-16:2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6:8)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단회적 사건인 칭의에 대해서 논하였는데 이제 6장부터는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득의’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고통하는 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연합의 원리에서 출발하는 성화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3, 5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과 최악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이제 성도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며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며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슬프고 괴로울 때에도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최악된 옛 자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6:13)

본 문에서는 성화의 기본적인 실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모든 죄악을 이겨 나가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적 군사로서 일어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12절에서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사욕에 드리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도들은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러한 존재일지라도 자신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성도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성도가 단순히 욕심과 죄를 멀리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의 병기’, 즉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써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소서.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6:23)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보여 주고 있는 자신과의 싸움은 죄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의 책임과 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정욕과 악한 세력과 선한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5-23절에서 은혜를 핑계삼아 죄악을 옹호하려는 율법 폐기론적 태도를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마귀를 섬기던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을 받아보던 자들에게 ‘성화의 실천’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예 제도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순종의 개념을 설명할 때 노예 제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이 비유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거절해야 합니다(12절).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죄와 맞서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삶 속에 찾아오는 죄를 물리칩시다.

▶ 기도 제목 / ① 성화의 단계에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7:6)

전 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여 육체적 정욕을 따르는 생활을 정당화하려는 반율법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주장(6:1, 15)을 반박했습니다. 이제 본 장에서 사도 바울은 건전한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해 줄 뿐”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진리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관계’라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를 든 결혼법에 의하면, 남편에게 매여 남편의 지배를 받는 아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남편이 죽은 경우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죽고, 새 남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입니다(4절).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능력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남편과 결혼한 아내는 자신의 행동을 바꿔야 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옛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의 규범과 원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순간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7:24)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의 요구는 선함과 거룩함이지만 그 요구와는 정반대로 향하게 되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투시하고서 두 자아의 비유를 통해서 마침내 죄와 진정한 자아를 구분시키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민하고 갈등한 끝에 하나님의 은혜, 곧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능히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승리의 소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죄와의 투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4절 이하에서 인간은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선한 양심과 죄에 굴복하려고 하는 옛 자아가 언제나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있다면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키고자 언제나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마음은 언제나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나 오히려 항상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24절)고 탄식합니다. 이는 악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절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지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죄악이 사해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진정한 구원의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6)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사라졌다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악한 사탄의 정죄 아래서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새 생활을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결국 그것은 삶의 질까지도 결정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 아니라 사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영의 생각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으며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때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현재의 위치를 잊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자의 위치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세상의 썩어질 것을 좇지 않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8:18)

예 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고통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하는 고통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재의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족히 비교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우리에게 있을 영광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으면 안됩니다. 나는 현재의 고난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의 전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피조물들의 신음을 들어서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조물까지도 마지막 날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망 중에 순종합니다(20, 21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신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열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감격으로 인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항상 소망 중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지상에서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으므로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영광을 얻기 위해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이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이와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 ㉑ (8:26)

하 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탄식과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들도 천재의 고난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는 항상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극한 상황에 이르면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26절에 보면 참으로 마음 든든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힘마저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시련의 때에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비천함과 자기를 버리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전에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아픔 가운데서 절대로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여, 오늘도 함께 하여 주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 하게 하소서.

『...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8:37)

하 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아들을 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다시는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비록 역경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생각할 때 도리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3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일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가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극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조건이 달려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9:3)

본 문에서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에 게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의 마음에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는 것까지 감수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해서는 안되므로 유대인들을 편애함은 옳지 않지만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빛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지고 있지만, 내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더욱 큰 아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은 없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이라 불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해진 것이 겨우 100년이 조금 지났는데 수많은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것과 세계 선교를 위해 5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다음 세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복음의 자유가 없는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된 민족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북한 동포도 우리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9:18)

하 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실 때에 그들이 다 성장하여 그들의 업적과 공로를 보고 선택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목적과 사랑에 의해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한 것은 에서에게 불평등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강조하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임의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힘이 있거나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잘못 사용하여 기독교적 운명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가볍게 사용하여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감사하며 확신을 갖는데 사용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은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바라보면서 크신 은혜에 더욱 더 감사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9:29)

하 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십니까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이런 물음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 사람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이십니다. 마치 이것은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임의대로 토기의 모양과 용도를 결정하듯 창조주 하나님에게도 이런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묻지 못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으면 유대인들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있으며 경건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유대인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바울은 감격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악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들보다 본질적으로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며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며 큰 은혜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과거 얼마나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었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를 늘 드리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9:30)

하 나님의 절대주권과 죄인들을 향한 조건없는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에 비교할 때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열심과 의를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과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을 때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놀라운 은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섬겼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심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열심과 충성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 값없는 은혜만을 자랑하였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나타나는 조건 없는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열심히 충성하고 섬겨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신앙이 참된 믿음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먼저 앞세우며 의지하게 하시고 열심과 충성은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 (10:9)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법도 세분화하여서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들어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 것도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정도로 철저하였습니다(눅 6:1-6).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모든 율법에 마침이 된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였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을 단번에 이루는 것이 됩니다.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거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의가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눅 2:10). 이 기쁨의 소식을 아는 자들은 이것을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은혜는 모두 율법의 마침이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것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완전한 구원을 날마다 소유하며 전하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10:18)

유 대인들은 전파된 복음을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만 이 복음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였는데(사 53:1)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들이 배척한다고 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배척받고 믿는 자들이 핍박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행 8:4).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까지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철저히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에 대한 관에 박힌 멸시와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봄으로 그들이 시기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사 65: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소홀히 여길 때 이 축복이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축복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자에게 머무릅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귀중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11:5)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당신은 ‘맞는 말’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삼하 7:24).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두 가지 모두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멸망시키시기는 하지만 얼마를 남겨두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 법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세대를 광야에서 멸망시키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두셔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엘리야뿐 아니라 칠천명의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남은 자를 귀환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유대인들은 모두 멸망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남겨 두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며 살아갈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1:11)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결과에 대하여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베풀기로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하고 그의 참 뜻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시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방인들과 절대로 함께 하지 말 것을 명하셨으나,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시기가 날 만도 합니다. 그 시기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믿음 안으로 들어 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2절을 통해서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하였지만 이방민족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수없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 삼으신 참 뜻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 ...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1:14)

비록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는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요, 바리새파에 철저하게 속한 사람으로서 이방인과 절대로 관계를 가지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과 화목해졌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3절에서 그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며 복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분투하는 이유를 결국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하고 싶은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동족들의 시기심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이 일어나는 남은 자들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자들과 화목을 이루시며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결론짓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라는 민족성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네가 …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11:24)

오 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적과 능력이 최고의 중요성과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가지 스스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나무에 접붙임 당하여 그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공급받을 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이 이방인들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고 말합니다(18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입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엄숙하게 경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접붙여진 가지들은 믿음이 없으면 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22절).

하나님의 원리와 목적은 불변적입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면 잘라 내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인자를 베푸시어 그들을 접붙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언제나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11:29)

하 나님은 유대인들을 부르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들이 요청에 실패하였다고 해서 후회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엡 2: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계기로 유대인들을 구원시키실 것을 잠시 유보시키십니다. 그 대신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에도 나타났다고 유대인 그리고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유대인들도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는 계획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31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긍휼을 더욱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32절).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풍성한 긍휼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푸시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공평하게 부르시고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내 주변에 구원얻을 자가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② 안석렬 선교사(수리남)가 진행하는 인디안 선교에 필요한 교회와 진료소를 건축하게 하소서.

“...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11:36)

하 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만유보다 부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도 불완전하고 인간들이 쓰는 언어나 모든 표현조차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형언하거나 형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부족한 표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시며,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며 또한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 33-35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부요함을 가지고 계시기에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밝혀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단위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만유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소유나 생명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물의 첫번째 근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최종적인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롬 15:6; 뱀전 4:11).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진행하는 성경공부를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12:2)

로 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11장을 교리 부분이라 할 수 있고, 12장 이후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번째 부분을 “그러므로 ... 내가 권하노니”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성도들을 향하여 몸과 마음의 새로운 헌신을 권면할 때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고후 1:3; 골 3:12; 히 10:28).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바울의 첫번째 권면은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복종한다”(롬 6:13, 16, 19)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드리는 이 산 제사가 바로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예배당에서의 예배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고전 6:19)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예배(산 제사)인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한 두번째 권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번째 권면이 몸을 드리라는 것이었는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기본적인 자세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원주민 선교에 전념할 수 있게 하소서.

『...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12:3)

사 람들은 일정한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 이상의 자리를 넘보거나 그 이상의 관계를 넘보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을 과장해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계속 되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각기 다른 지체들에게 봉사해야 합니다(4절, 고전 12:4). 이 은사는 은혜의 대로(太路)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는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것에만 국한 될 것은 아니겠지만,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섯 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잘 다스리는 일, 공활을 베푸는 일입니다(참조 고전 12, 13장, 엡 4장). 구제하는 자들은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자들도 군림하는 태도로서가 아니라 앞장서는 태도로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활을 베푸는 자들도 슬픈 빛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은사는 주신 분을 위해 봉사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케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형제를 사랑하여 …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12:10)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할 때 핵심적인 말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과 거짓의 논리로써 사랑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권면하기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그 뜻을 깊이 살펴보면 악을 싫어하되 미워하기까지 대적하고, 선을 지키되 사랑엔 거짓이 없게 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자주 악을 대적하라고 권면하십니다(잠 8:13: 히 1:9: 계 2:6). 적극적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선한 것을 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을 좇는 일의 중착점은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9절과 10절에서 연속적으로 존경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애를 가지고, 일방통행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빌 2:3).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향하는 방향은 서로가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11절). 주를 섬기되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현장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소망 중에 늘 즐거워하며(벧전 1:6-9), 환난과 곤경과 핍박 중에 잘 참으며(5:3) 언제나 하나님의 힘주심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살전 5:17).

우리의 사랑과 소망의 목적은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서로 평화하라.”(12:18)

우 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들이 당한 환난이나 곤경에서라도 서로가 협력하는 일이 필요한 것을 역설한 말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환난이나 곤경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도 환난과 곤경을 만나면 곤궁에 처한 백성들과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쁨과 슬픔을 성도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질 특징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항상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롬 15:5; 빌 2:2; 벧전 3:8). 우리들 안에 항상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각자가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는 자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빌 2:2-3).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간의 칭찬을 듣게 될 때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려는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려거나 대단하게 평가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잠 3:7; 롬 11:25).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가지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출 21:24) 신약시대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합니다(벧전 3:9).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원수들까지라도 사랑하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업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 (13:1)

본 문은 성도가 지녀야 할 세상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일꾼들(6절)이라고 규정하면서 성도들은 마땅히 그들에게 복종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이 갖고 있는 권세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 정부 혹은 국가 권세와 같은 기관들을 친히 제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권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듯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당시 로마 교회내의 유대인 출신 성도 중 많은 수가 자신의 조국이 로마의 속국인 것 때문에 로마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었으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점차 가중되는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항하려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이 국가 권세를 세우신 것은 선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처벌에 의하여 제어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선을 행하기를 힘쓴다면 결코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악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권세에 복종하는 소극적인 복종을 넘어서 자신의 양심에 준한 적극적인 복종을 해야 합니다. 단,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면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국가가 가하는 처벌은 연단의 채찍으로 알고 주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한 관원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관원들이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13:10)

본 문은 성도 개개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당부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믿음의 지체들을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8절). 즉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랑으로 대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십계명 중 대인(對人)관계에서 지켜야 할 제5-10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교훈은 성도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사랑으로 대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도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무조건적으로 담을 쌓고 사는 배타적인 사람들에게 대하여 좋은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불신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거나 또는 도의적인 빛을 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계명을 이루게 하는 사랑이라는 새 계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짚아도 충분함이 없는 이 빛이 우리에게 있기에 삶의 전 영역에서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빛진 자들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② 복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12)

본 문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 곧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최종 구원이 임박한 줄 알고 그것을 예비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는 신령한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때를 아는 성도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밤과 어두움은 이 세상의 죄악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세상이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과 온갖 사악한 것들로 가득차음을 나타냅니다. 천국의 시민인 성도는 이러한 밤과 어두움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적 군사들로서 빛의 갑옷,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과 진실로 옷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진정 이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단지 종교적인 흉내만 내면서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탐욕과 방탕, 온갖 죄악된 것에 물들어 있거나 않은지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로 옷입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을 더하여 주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14:1)

본 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간의 분쟁의 원인이 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방법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심하는 바에 대해 비판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로마 교회 교인 중에는 시장에서 판매되던 대부분의 짐승의 고기가 이교신들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이었기에 이를 꺼림직하게 생각하여 아예 채식만 하는 사람들과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처럼 안식일이나 절기 등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문제들에 전혀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분쟁한 데에 있었습니다. 즉 보다 금욕적이고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를 비판하였고 또한 보다 자유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반대의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인을 판단하는 권이 제 주인에게 있음을 예(4절)로 들어 그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는 일을 그치고 모든 일을 주를 위해 감사함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일의 목표가 주께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의 언행이 늘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판보다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비판보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14:19)

본 문은 성도간에 서로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13절). 왜냐하면 비록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속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속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근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하여 교회의 화평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서로 덕을 세움으로 화평과 희락을 가져오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음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으나 그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만 스스로 가질 것이며 교회 안에서는 건덕을 위하여 형제에 대해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배려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방법임을 일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믿음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지속적으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하고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보다는 연약한 자의 신앙에 기준을 두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생각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모든 일에 화평과 덕을 세우도록 하소서. ② 남북이 피흘림 없이 복음으로 통일 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15:1)

본 문은 로마 교회에 일어난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기록한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화합을 위하여 먼저 믿음의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형제를 기쁘게 하며,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교회 화합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땅에서 자신을 기쁘게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섬김의 자세가 있을 때에만 교회의 화합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에 대해 우리는 그 책임을 무조건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 자신의 이기심이나 교만 혹은 형제에 대한 이해와 섬김의 자세가 부족하여 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이를 해결하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사 한 형제가 되게 하신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분쟁이 없게 해야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서로 지체의식으로 강하게 단결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아름답게 이루어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연약한 점을 감당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 ▶ 기도 제목 / ①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10월 한 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11월에도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옳은 길로 인도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시 편

서 문

하나님께서서는 깊고 오묘하신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의 허락하시되 다양한 형태의 글들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말씀들, 격언의 형태로 기록된 잠언, 그리고 시(詩)들이 그것입니다.

시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서는 때로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시편을 소리내어 읽음으로 좀 더 하나님의 가슴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시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구법(두번째 행이 첫번째 행을 받아 부연하거나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형태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은 총 다섯 권의 책으로 분류됩니다. 1-41편, 42-72편, 73-89편, 90-106편, 107-150편. 이 시들 중 어떤 것들은 공적인 예배를 위해 씌어졌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의 심정을 아뢰는 형식으로 씌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은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들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그분과 시인 및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각 시편마다 한 가지 진리의 각도를 취하여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속한 시들의 다수는 다윗이 기록한 것이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나 성가대의 지휘자들, 심지어 모세가 기록한 시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이어 시편의 제2권부터 제5권까지 묵상하고 그 중 일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구성

제1권(1-41편)

제1권의 주요 저자는 다윗입니다. 기본 내용은 예배의 찬송들으로써 신학적으로는 창세기의 인간 및 만물의 창조가 주요 배경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제2권(42-72편)

2권에는 다윗의 시들 외에도 고라의 시들이 등장합니다. 이 시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는 시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는 출애굽기의 구원과 구속이 주요 배경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제3권(73-89편)

3권의 주요저자는 아삽입니다. 3권도 2권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는 분위기를 담고 있으나, 신학적으로는 주로 레위기의 예배와 성소가 주요 배경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제4권(90-106편)

4권의 저자들은 주로 익명의 시인들입니다. 4권은 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민수기의 광야 방랑생활이 주요 배경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제5권(107-150편)

5권의 일부는 다윗이, 일부는 익명의 시인들이 기록하였습니다. 5권 역시 4권과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는 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신명기의 율법과 찬송이 주요 배경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제 1 과

시편(5)

악인의 형통

찬 송 / 423장
읽을 말씀 / 시 73-83편
공부할 말씀 / 시 73편

먼저 읽기

시편 73편은 전 5권으로 나누어진 시편 중 제 3권의 출입문입니다. 사실 제 3권 시편들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잠잠하심에 대한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이미 욥기 및 시편 37, 49편 등에서 등장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선택하고 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악에는 벌을 내리시고 선에는 상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땅 위에 이해할 수 없는 불의와 불공정의 번성을 내버려두시는 것일까요? 이상하게도 악한 자들은 공의를 저버리고서도 ‘본토에 선 푸른 나무’ 같이 번성합니다(시 37:35). 그렇다면 진실과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흔적 찾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잠잠하신 하나님의 불가사의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는 성도들이 용납할 수 있는 궁극적인 답변을 발견하여 제공해 줍니다. 73편의 시인 아삽의 깨달음을

다윗도 선물로 얻은 바 있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볼 것이며 ...”(시 37:1-2).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시인이 본래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1절)
2. 시인이 실족할 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3절)
3. 시인이 묘사하는 '악인의 형통'은 어떤 것들입니까?(4-12절)
 - 그들의 상태(4, 5, 7, 12절) -
 - 그들의 태도(6, 8, 9, 11절) -
4. 악인의 형통을 본 시인의 '실망'은 어떤 말로 표현되었습니까?(13절)
5. 시인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까?(16-17절)
6. 그가 깨달은 악인의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18-20절)

7. 시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28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우리는 어느새 '공평하지 않은 세상'을 익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한 부자와 악한 가난뱅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어쩐지 우리들의 눈에는 악한 부자와 선한 가난뱅이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다윗이 시 37편에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행악자를 인해 불평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13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방이 확 트인 들판에서 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면서 억울한 사정을 터뜨리고 싶은 때는 없습니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 누군가에게 억울한 사정을 마구 털어놓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의 장점과 한계는 무엇일까요?
2.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답답한 현실 넘어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공평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이 '억울해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18-20절). '믿음을 쌓는 기도와 예배'만이 이 땅의 모든 가치들을 상대화시키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진정코 믿음을 일으키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제 2 과

시편(6)

무상한 인생, 크신 하나님

찬 송 / 349장

읽을 말씀 / 시 84-106편

공부할 말씀 / 시 90편

먼저 읽기

시편 90편에는 전체적으로 '인생의 무상함'이 짙게 드러워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영국에서는 이 시편이 장송곡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독자로 하여금 읽도록 유도하는 주제는 인생의 무상함을 넘어서는 크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시에 붙은 제목은 시의 저자를 모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는 신명기 32,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 특별히 신명기 32장의 내용과 시편 90편의 내용은 공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시편 90편의 저자가 모세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가 이 시를 저술한 시기는 아마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후(모세가 80세를 갓 넘겼을 때)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는 인생이 강건하면 팔십이라는 내용과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함께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모세는 인간의 보편적인 연약성과 죄악성에 대해, 그리고 특정한 고난의 날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지만 절망

과 불평을 토로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시인의 마음은 겸손히 낮아져서
순종하고 감내하고 신뢰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시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1절)
2.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 2절 :
 - 4절 :
3.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인생의 무상함은 어떤 것입니까?
 - 3절 :
 - 5-6절 :
 - 7-10절 :
4.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생의 무상함을 묘사한 시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12-17절)
 - 첫번째 기도-가르치소서(12절) :
 - 두번째 기도-배푸소서(13-15절) :

- 세번째 기도-이루소서(16-17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생의 죄악됨과 무상함을 대비시킨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진실어린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먼지 같은 자신의 연약함은 뒤로 제쳐둔 채, 급한 마음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마치 하나님을 종부리듯(?)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혹은 오늘 당신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2. 위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항상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듯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하여 가망없는 존재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소망 중에 간구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17절). 따라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뚜렷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할 때, 어두운 현실에 삼킨 바 되어 깊은 침체에서 헤어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3. 시인은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당신의 하루, 한 달, 한 해는 어떻게 지나갑니까? 혹 끊임없는 후회 속에서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세월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제 3 과

시편(7)

죽은 우상과 살아 계신 하나님

찬 송 / 30장

읽을 말씀 / 시 107-119편

공부할 말씀 / 시 115편

먼저 읽기

어떤 이는 시편 115편이 성전에서 합창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서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노래가 바로 115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유대인의 찬양곡으로 분류될 뿐 아니라, 시의 형태도 예배 의식송에 맞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제사장과 백성 혹은 찬양대와 회중 사이에 불리워지는 율창곡이었을 것입니다(참고. 스 3:11). 특별히 이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자 하는 이방인들의 경멸섞인 질문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야말로 얼마나 경멸받아 마땅한 물건들인지를 날카로운 풍자술로 들추어 냅니다. 시인은 한갓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 만들어진 물건에 불과한 우상들을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통치자 하나님과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직후를 배경으로 하면서, 바벨

론의 우상들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시도에서 기록된 시편일 것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시의 서두에서 시인이 먼저 간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1절)
2. 열방이 경멸적인 질문으로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2절)
3. 열방의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시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3절)
4. 열방이 섬기는 신(우상)의 본질에 대하여 시인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4-7절)
5. 섬김받는 우상과 섬기는 자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8절)
6.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도움이시요, 방패시요, 복주시는 분)에 근거하여 이스라엘(백성들과 아론의 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 '한 마디로'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9-15절)
7. 시인의 마지막 결단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18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시인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청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열방의 경멸어린 질문인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로 옮겨갑니다. 이 두 구절은 어떻게 연결되니까? 사실 1절을 쉽게 풀어보면 '우리에게는 영광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 또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열방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지 못하도록 역사하소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2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열방의 비웃음을 격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모습과 성공적이지 못한 모습은 종종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개선해 보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당신에게도 불신자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2. 주변에 우상숭배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에게 어떤 충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으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음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제 4 과

시편(8)

회복의 감격과 씨뿌림

찬 송 / 489장
읽을 말씀 / 시 120-134편
공부할 말씀 / 시 126편

먼저 읽기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모두 열 다섯 편의 시들은 모두 '순례자의 노래'로서 어떤 이는 이 부분을 시편 중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의 주요한 세 절기 중 어느 한 때에 광야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들이라고 생각됩니다('지파들 곧 여호와와 지파들이 여호와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 시 122:4). 이 순례자의 노래들은 모두 간단하게 기록되었고, 대부분의 노래들은 시온과 성전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예루살렘의 평화와 번영을 기리고 있습니다. 물론 평화와 번영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의 음모와 박해 아래서 신음하는 고통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도다' - 시 124:8). 따라서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회복의 은총'에 대한 한없는 기쁨과 감격을 매우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들 중 어떤 것들은 포로기 이전의 상황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시온으로 되돌아 오도록 허락하셨을 때 백성들의 가슴을 가득 채웠던 '회복의 감격'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 1절 하반절 :

- 2절 상반절 :

2. 그 감격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매우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공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2절 하반절)

3. 참고 : 4절은 '주님, 네 겹(사막지역)의 시내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사로잡힌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순례자들의 이 기도는 회복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완성되지는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고난의 역사를 거친 시인의 마지막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5, 6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통해 바벨론 포로의 흑독한 시절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죄 아래서 신음하던 무지와 어두움의 시절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이 둘은 약속과 성취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죄로부터의' 영원한 해방과 자유에 대하여 어떻게 회복의 감격과 기쁨을 묘사할 수 있습니까?
2.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가족이나 친족, 이웃들은 당신이 얻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 지금은 추수기입니다. 그리고 일년 동안 교회와 일터와 가정과 자기 자신의 영혼 속에 뿌린 씨앗들의 추수를 바라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5, 6절의 고백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지난 10개월의 생활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5 과

시편(9)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와 의 눈

찬 송 / 244장

읽을 말씀 / 시 135-150편

공부할 말씀 / 시 139편

먼저 읽기

시편 139편은 '모든 시편의 면류관'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적대적인 세상에 대한 예리하고도 섬세한 발견들을 번득이는 필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찬양을 넘치도록 풍부하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1-6절)과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심(7-12절), 그리고 전능하심(13-18절)에 놀라서 넋을 잃습니다. 특히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매우 세세하게 묘사하되 결코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기이함과 놀라움 속에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전지, 편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후, 다윗은 바로 그러한 놀라운 사실로 인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자들이 깨끗이 제거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 그 일에 앞장설 것을 결단합니다(19-24절). 사실, 이 종결부(19-24절)는 언뜻 보기에 전반부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문제는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선과 악의 미묘한 경계선상을 보면서 철저히 악에 대항하여 하나님편에 설 것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꿰뚫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2-4절)
2.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6절)
3. 다윗은 어디에나 계신(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8-12절)
4.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7절)
5. 다윗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어떻게 묘사합니까?(13-16절)
6. 하나님의 능하심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17절)
7.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대하여 다윗은 어떻게 결단합니까?(21-22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다윗이 '나의 모든 것, 곧 앓고 일어섬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감사가 더 깊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나의 깊은 속사정을 모르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좌절과 염려에 빠져계시지는 않습니까?
2.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말씀과 연관됩니다. 곧 나는 내가 활동하는 모든 장소와 활동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맡겨드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도록 의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 1)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터전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경쟁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그 가치관은 우리 각자의 가정뿐 아니라, 교회와 심지어 우리들의 생각에까지 파고들어와 있습니다. 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자녀교육 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 2) 현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유행하는 익명성(자신을 감추고서 교회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성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2 과

기도 응답의 확신

찬 송 / 479장

암송할 말씀 / 요일 5:14, 15

목 상

요한일서 5:14, 15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2.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나의 점검

3. 하나님 백성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기도 응답에 대해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은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모름

2) 당신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모름

3) 당신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성경 말씀과 대조해 보셨습니까?

예 아니오 모름

4) 당신은 기도한 후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모름

5) 당신은 기도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모름

6) 당신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함을 도와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모름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

4. 성도가 담대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5. 이런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

6. 본문의 “무엇이든지 구하면 ...”에서 “무엇이든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7.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엡 6:18)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

8.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며, 누구에게 응답을 받습니까?

9. 기도 응답 받는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 요한복음 14:14

- 요한복음 15:7

10.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야고보서 4:3

- 시편 66:18

적용

10.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적어보시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 자신의 삶에 대해서

MEMO[illegible]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